85年度 石油製品 需給計劃

南宮 堅
〈動力資源部 石油需給課長〉

Ⅰ. 머리말

제 5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제4차년도인 85년도의 石油製品수요는 작년도인 84년도 수요 194,887千배럴(533千B/D) 보다 약 3.1% 수준이 증가된 200,948千배럴(551千B/D)로 전망되었다.

이러한 石油수요는 80년도부터 3년간 계속 수요감소현상이 지속되다가 83년도에 들어 수요증가현상이 나타나면서 84년도에 이어 올해에도 그 증가추세가 계속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表－1〉 참조).

그러면 여기서 85년도의 石油製品수급계획을 설명하기 前에 이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지난 84년도의 수급실적을 간단히 살펴보고자 한다.

Ⅱ. 84년도의 石油製品 수급실적

1. 需要側面

지난 84년도의 石油製品수급계획상 수요는 国際原油価格 및 수급안정과 国内景気의 회복세 등에 따른 수요증가측면과 脫石油電源개발계획, 산업용 燃料의 有煙炭代替, 에너지소비절약 등의 추진으로 인한 수요감소측면을 감안, 83년도 수요보다 3.2% 증가된 197,440千배럴(541千B/D)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했었으나, 당초 예상과는 달리 脫石油電源개발계획에 따른 發電用油類의 대폭적인 감소등으로 인하여 84년 계획 보다는 1.3% 감소하고, 83년 실적 보다는 1.9%가 증가된 194,887千배럴(533千B/D)이 소비되었다.

〈分期別 消費動向〉

소비동향을 분기별로 살펴 보면, 〈表－2〉 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1/4분기중에는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생산 및 出荷증가와 더불어 산업 및 수송용 油類소비, 異常寒波, 가스使用選好경향으로 전년동기대비 11.7%가 증가하였으나,

〈表－1〉 연도별 石油製品 수요변화 推移

(單位：千배럴)

區分 \ 年度	78	79	80	81	82	83	84	85
需要	164,255	185,378	183,498	182,252	181,168	191,293	194,887	200,948
〈千B/D〉	〈450〉	〈508〉	〈503〉	〈499〉	〈496〉	〈524〉	〈533〉	〈551〉
前年對比增減率(%)	14.7	12.9	△ 1.0	△ 0.7	△ 0.6	5.6	1.9	3.1
石油依存度(%)	63.5	62.9	60.3	58.4	58.0	56.5	52.3	50.4

〈表－2〉 84년도 分期別 消費動向

(單位：千배럴)

區分 \ 分期別		1/4	2/4	3/4	4/4
當分期	83實績	46,351	47,116	45,585	52,241
	(%)	(6.1)	(6.7)	(3.7)	(5.8)
	84實績	51,782	46,329	45,310	51,466
	(%)	(11.7)	(△1.7)	(△0.6)	(△1.5)
累計	83實績	46,351	93,467	139,052	191,293
	(%)	(6.1)	(6.4)	(5.5)	(5.6)
	84實績	51,782	98,111	143,421	194,887
	(%)	(11.7)	(5.0)	(3.1)	(1.9)

註：(%)는 前年同期對比 增減率

〈表－3〉 84년도 油種別 消費実績

(單位：千배럴)

油種 \ 年度	82	(%) 전년비 증감률	83	(%) 전년비 증감률	84	(%) 전년비 증감률
揮發油	4,665	△22.3	4,623	△ 0.9	5,460	18.1
燈油	7,646	△ 2.8	7,823	2.3	8,225	5.1
輕油	40,652	3.9	44,767	10.1	50,211	12.1
B－A	2,178	△ 4.7	1,969	△ 9.6	1,959	△ 0.5
B－B	876	△33.3	829	△ 5.4	898	8.3
B－C	89,518	△ 3.3	88,025	△ 1.7	79,845	△ 9.4
Jet A-1	3,246	8.6	3,563	9.8	3,683	3.4
JP－4	2,984	26.9	3,969	33.0	4,118	3.7
프로판	2,852	21.3	3,947	38.4	5,355	35.6
부탄	4,161	59.4	5,981	43.7	6,969	16.5
나프타	19,863	△ 3.7	22,858	15.1	24,885	8.9
溶劑	507	86.4	953	88.0	833	△12.6
아스팔트	2,018	6.6	1,985	△ 1.6	2,446	23.2
計 (千b/d)	181,168 (496)	△ 0.6	191,293 (524)	5.6	194,887 (532)	1.9

2/4분기부터 4/4분기까지는 수송용油類 및 가스의 소비량급증과 石油化學業界의 호황에 따른 油類소비증가에도 불구하고 原子力 및 有煙炭發電所 등의 가동률 증가로 인하여 油類소비가 상대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2/4분기 이후에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1.3%씩 감소함으로써 年間累計가 1.9% 증가하는데 그쳤다.

〈油種別 消費動向〉

소비동향을 주요油種別로 살펴 보면, (〈表－3〉참조) 제2차 石油波動으로 인하여 가장 높은 가격상승을 보였던 揮發油는 사용자 스스로의 소비절약 및 정부의 영업용 揮發油차량에 대한 LPG車輛으로의 전환정책 등으로 인하여 80년도부터 83년도까지 연평균 약 13% 정도씩 감소하였었으나, 84년도에는 경기회복과 자가용차량의 급증등으로 揮發油소비가 증가세로 전환, 전년대비 18.1%의 높은 증가를 보였다.

石油製品中에서 가격탄력성이 가장 큰 油種으로 알려진 灯油도 지난 80년도부터 7～3%씩 3년간 감소하다가 83년도에 2.3%의 증가세로 전환되어 84년도에는 5.1%로 증가되었으며, 輕油는 例年의 2～4% 伸張勢가 83년도부터 차량의 급증추세에 따라 10% 이상의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또한 81년도부터 2년동안 4%씩 감소해 오던 나프타수요도 〈表－3〉에서 보는 바와 같이, 石油化學業界의 높은 가동률에 힘입어 83년도에는 무려 15.1%, 84년도에는 8.9%의 증가를 나타내어 국내 나프타수급의 문제점을 야기시킨 바 있으며, LPG도 전년대비 24.1%의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한편, 脫石油政策의 추진에 의하여 延4년째 減少勢였던 B—C油는 84년도에도 계속 감소세를 유지하고 있어 油類수요구조의 변화, 즉 重質油(B

〈表－4〉 연도별 B－C油 需要구성비 減少推移

(單位：千B/D)

區分 \ 年度	74	76	78	80	82	83	84	85
製品總需要	263	323	450	503	496	524	533	551
B-C油需要	150	181	227	255	245	242	218	216
B-C油構成比(%)	56.9	55.1	50.5	50.7	49.4	46.2	41.0	39.2
其他油構成比(%)	43.1	44.9	49.5	49.3	50.6	53.8	59.0	60.8

－C油) 구성비의 감소현상과 輕質油 구성비의 증가현상을 계속 나타내고 있다(〈表－4〉 참조).

2. 供給側面

石油製品수요가 83년도대비 1.9%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전체 原油投入量도 83년도대비 5.7% 정도가 증가된 201,429千배럴(550千B/D)이나 되었다.

그러나 賃加工原油처리량 27,811千배럴(76千B/D)을 除할 경우 內需原油처리량은 173,618千배럴(474千B/D)이며, 賃加工原油처리량을 賃加工製品의 수출실적인 20,239千배럴의 精製에 소요된 21,009千배럴만을 감안할 경우 실제內需用 原油처리량은 180,420千배럴(493千B/D)이 되었다고 할 수 있겠다.

이렇게 石油製品수요의 증가와 賃加工 수출물량의 증대등으로 原油투입량이 증가됨에 따라 精油社의 가동률도 83년도의 66% 수준에서 84년도에는 70% 수준까지(賃加工 除外時 62%임) 상승되었다.

또한 原油처리량의 증가로 제품생산량도 83년도대비 3.9%가 증가된 196,018千배럴이 되었는가하면, 나프타와 LPG 및 低硫黃 B－C油수요 증가에 따라 제품수입량도 83년대비 3.6% 증가된 22,482千배럴이 되었고, 제품수출량은 賃加工수출량의 증대에 따라 83년대비 무려 46.6%가 증가된 24,053千배럴이나 되었으며, 輸出額面에서도 7

〈表－5〉 84년 需給実績

(單位：千배럴)

區分 \ 年度	83	84	前年比增減率(%)
原油處理量	190,643	201,429	5.7 증
(千B/D)	(522)	(550)	
製品生産量	188,667	196,018	3.9 증
製品輸入量	21,697	22,482	3.6 증
製品輸出量	16,406	24,053	46.6증

億1千萬달러나 되어 수출목표달성에 一翼을 담당하게 되었다(〈表－5〉 참조).

Ⅲ. 85년도의 石油製品 需給計劃

1. 需要推定 내역

85년도의 우리 나라 石油製品수요는 전년대비 3.1% 증가된 200,948千배럴(551千B/D)로 전망되며, 同需要中 에너지油는 171,193千배럴로 3.1% 증가, 非에너지油는 29,035千배럴로 역시 전년대비 3.1% 증가될 것으로 전망된 바, 그 배경을 略述하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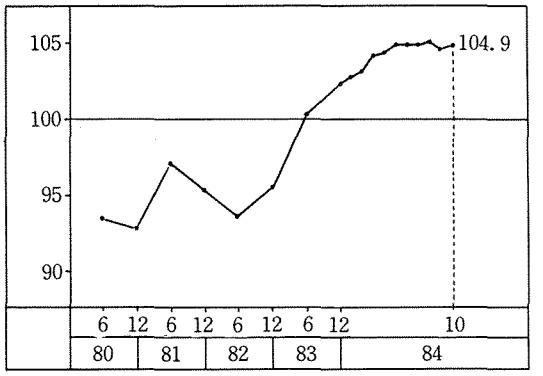
첫째, I.E.A등 国際에너지關係전문연구기관 및 전문가등이 예측하는 바와 같이, 世界原油価格은 앞으로 80년대말까지는 현수준 유지 또는 약세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국내의 石油수급 및 가격도 일단은 안정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올해에도 国內景気가 안정적인 好況局面을 지속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表－6〉 참조) 제2차 石油波動이후 80년도부터 감소하기 시작한 油類수요가 점차 회복세로 전환되어 증가되는 추세 (〈表－1〉 참조)가 계속될 것으로 예측된다.

둘째, 石油製品수요증가측면으로서 올해의 경제성장률과 鉱工業성장률이 전년도 수준인 7～13% 정도로 목표설정되어 있는 점과 경기회복의 가속화에 따른 물동량증가와 국민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自家用수요의 잠재력으로 車輛수요가 전년대비 약 17～20% 수준으로 증가(〈表－1〉 참조)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으며, 石油化學用 나프타수요도 전년에 이어 4.6%의 증가세가 유지될 전망이다.

〈表－6〉 国内景氣動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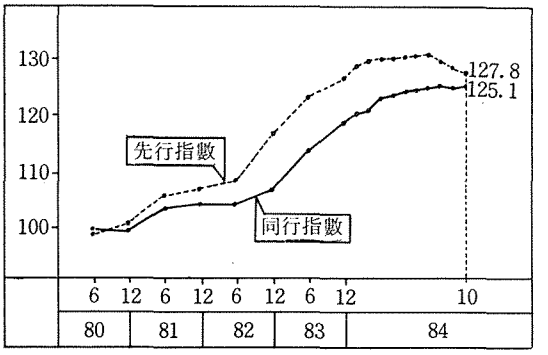
	83. 6	84. 3	6	8	9	10
同行指數 (循環變動値)	100.1	104.5	104.9	105.0	104.6	104.9



(比前月, %)

	84 1/4	2 / 4	3 / 4	9	10
先行指數	1.0	0.1	− 0.5	− 1.3	− 0.2
同行指數	1.2	0.3	0.1	− 0.2	0.6

(1980=100)



세째, 石油製品수요감소 측면으로서는 우리 나라 전체油類수요의 약 1/4을 차지하는 發電用수요가 脫石油化政策의 추진으로 B—C油에서 原子力 및 유연탄으로 燃料代替됨에 따라 発電用연료는 전년대비 1.6% 정도 감소될 예정으로 있으며, 정부의 石油依存度 감축목표달성을 위한 각종 시책, 즉 산업용燃料의 有煙炭사용확대에 의하여 B—C油 사용은 점차 감소될 전망이다.

또한 올해의 에너지절약시책과 우리 나라의 산업구조 및 주택구조가 종전의 에너지 多消費形態에서 점차 에너지절약 형태로 변화하고 있는 점등을 감안한 諸般수요감소요인도 油種別, 부문별, 用途別로 충분히 고려하여 추정하였다.

〈表－7〉 85 主要指標 비교

區分 \ 年度		84(暫定)	85(計劃)
GNP成長率(%)		7.5	7.5
鑛工業成長率(%)		14.1	13.4
輸出 (億$)		265	305
에너지源別 構成比(%)	石油	52.3	50.4
	有煙炭	15.9	17.6
	無煙炭	20.9	20.4
	原子力	5.4	6.3
車輛保有台數(千台)		927(18%증)	1,095(18%증)
−揮發油用		363(20%증)	442(20%증)
−輕油用		477(17%증)	559(17%증)
−LPG用		82(17%증)	94(15%증)
發電用B−C油需要 (千B)		37,472(△23.1%)	36,882(△ 1.6%)

註：車輛保有台數는 交通部計劃 등을 감안한 推定値임.

따라서 올해의 石油製品 수요는 전년대비 비록 3.1% 정도의 증가에 그치고 있으나, 전년대비 1.6% 감소될 것으로 예측되는 發電用 연료유 수요를 제외할 경우에는 전년대비 4.2%(84년도에는 83년대비 10.4% 증가되었고 發電用수요는 무려 23.1%나 감소되었음)가 증가되는 수요인 것이다.

〈油種別 製品需要〉

石油製品 전체수요의 약 85% 정도를 차지하는 에너지油는 전년대비 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바, 이는 揮發油와 輕油, 그리고 제트油와 LPG등 軽質燃料油는 약 6.5% 수준으로 증가하나 重質油가 1.3% 정도 감소하기 때문에 평균하여 3% 증가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

이를 各油種別로 살펴보면 〈表－8〉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B—C油, B—A油, 溶劑 및 아스팔트만 전년대비 감소추세이고, 나머지 9個油種 모두는 증가추세이다. 즉 B—C油는 감소폭이 1.3

〈表－8〉 84～85 石油製品 需要比較

(單位：千배럴)

油種 \ 年度別		84(暫定)	前年比(%)	85(計劃)	前年比(%)
에너지油	揮發油	5,460	18.1	6,334	16.0
	燈油	8,225	5.1	8,429	2.5
	輕油	50,211	12.1	52,496	4.6
	B－A	1,959	△ 0.5	1,949	△ 0.5
	B－B	898	8.3	921	2.6
	B－C	79,845	△ 9.4	78,821	△ 1.3
	Jet A-1	3,683	3.4	3,966	7.7
	JP－4	4,118	3.7	4,238	2.9
	프로판	5,355	35.6	6,871	28.3
	부탄	6,969	16.5	7,888	13.2
	計	166,723	0.7	171,913	3.1
非에너지油	나프타	24,885	8.8	26,041	4.6
	溶劑	833	△12.6	584	△29.9
	아스팔트	2,446	23.2	2,410	△ 1.5
	計	28,164	9.2	29,035	3.0
合計 (千B/D)		194,887 (532.5)	1.9	200,948 (550.5)	3.1

% 수준인 반면, 揮發油와 輕油는 揮發油 類似製品의 유통방지와 車輛수요증가로 인하여 전년대비 각각 16%와 4.6%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으며, 제트油와 LPG도 각각 5.1%와 19.8%의 수요신장을 나타내고 있다.

한편 非에너지油도 에너지油와 비슷한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전망되는 바, 이는 주로 石油化學 및 肥料工業用 나프타수요의 증가에 기인한 현상이라 하겠다.

이상에서 전망한 바와 같이, 85년도 油類수요변화추이의 큰 특징중의 하나는 輕質油수요는 크게 증가하는 반면, 重質油수요는 오히려 감소하여 輕質油와 重質油의 구성비가 작년도의 56：44에서 58：42로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2. 需給計劃 內譯

가. 概 要

85년도 石油製品의 수급계획은 總製品수요 200,948千배럴(551千B/D)을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총수요의 약 89%에 해당하는 180,836千배럴(495千B/D)은 산유국에서 原油를 도입하여 국내생산 공급하고, 일부 過不足物量은 제품을 輸出入하여 수급균형을 도모해 나갈 예정이며, 연말재고는 전년도 수준을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表－9〉 참조).

나. 精油社 稼動

전술한 180,836千배럴의 石油製品을 국내 생산 공급하기 위하여 이에 소요되는 原油수요는 전년대비 6.7% 증가된 185,278千배럴(508千B/D) 이다. 그러나 85년도에도 작년도와 마찬가지로 賃加工輸出이 추진될 것이나, 전년도보다 賃加工物量이 감소될 전망이므로 賃加工用을 포함한 原油수요는 약 201,703千배럴(553千B/D) 정도가 되어 전년도 실제原油처리량 201,429千배럴과 대등한 수준이 될 전망이다.

85년도 原油수요 185,278千배럴의 확보 및 조달은 정부와 精油業界가 原油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하여 그동안 原油導入先多辺化政策의 추진으로 既確保된 물량과 世界原油市場의 공급과잉현상으로 인한 저렴한 現物市場의 原油도 일부 조달·활용할 계획이다.

한편, 精油社의 가동률은 전년도의 62% 수준보다 약 2% 높은 64% 수준이 될 전망이며,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賃加工수출이 계획대로 추진될

〈表－9〉 85 石油製品 需給計劃 내용요약

需給 \ 區分	供給				需要			年末在庫
	年初在庫	生産	輸入	計	內需	輸出	計	
物量(千B)	12,187	*184,640	21,816	218,643	200,948	5,500	206,448	12,195
前年對比(%)		(5.0)	(△3.0)		(3.1)	(149.3)		

註：*生産=純內需生産(180,836千B)+賃加工殘留分(24%：3,804千B)

경우에는 약 70% 수준까지 도달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 製品需給

대부분의 先進石油消費国들이 채택하고 있듯이, 우리 나라도 石油의 안정적 확보와 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消費地精製方式을 채택하고 있는 바, 국내 수요에 대한 공급방안으로서는 가능한 한 장기공급계약으로 확보된 原油를 도입하여 국내 정유공장에서 생산·공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만일, 이러한 消費地精製方式을 채택하지 않고 産油地精製方式의 형태와 같이 제품수입에 큰 비중을 둘 경우에는 국내정유공장의 가동률저하는 물론, 전혀 原油가 생산되지 아니하는 非産油国의 입장에서 볼 때 国際石油市場의 사정이 악화되었을 경우, 물량 및 가격면에서의 안정수급을 기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내수급에 일대 혼란을 야기시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石油製品의 수출입은 消費地精製方式下에서 석유제품의 수급균형을 이루기 위한 緩衝裝置的인 수단으로 이용할 수 밖에 없을 것 같다.

따라서 국내생산·공급을 위주로 한 수급계획하에서 石油製品의 수출은 자연히 규제하게 되는 바, 올해에도 예년과 마찬가지로 석유제품의 수출입은 油種別 生産收率과 소비구조와의 차이, 계절변동에 따른 시기적 수요증감 및 精油社의 原油投入計劃의 변동에 의한 수급불균형으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일부 油種의 過不足物量, 즉 B—C油, 나프타, LPG 및 軽油와 대기오염방지를 위한 低硫黄燃料油의 도입을 위주로 허용해 나가되 최근 국내외의 油類수급이 매우 안정적 상태에 있는 점을 감안, 가능한 국내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는 精油社의 자율적인 수급균형유지를 위해 정부의 수급통제를 가급적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表—10〉 참조).

라. 低硫黄燃料油 供給計劃

경제발전에 따른 산업화·도시화 및 차량증가등으로 대도시와 工業團地 주변의 대기오염도가 증가되어 공해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됨에 따라 대기오

〈表－10〉 85년도 石油製品 需給計劃

(單位：千배럴)

油種 \ 需給		需要	供給				輸出	年末在庫
			年初在庫	生産	輸入	計		
에너지油	揮發油	6,334	667	6,159	—	6,826	—	492
	燈油	8,429	735	8,318	—	9,053	—	624
	軽油	52,496	2,459	50,861	2,000	55,320	600	2,224
	B — A	1,949	137	1,866	—	2,003	—	54
	B — B	921	130	933	—	1,063	—	142
	B — C	78,821	5,450	75,810	7,528	88,788	4,891	5,076
	제트A — 1	3,966	438	4,311	—	4,749	—	783
	JP — 4	4,238	284	4,106	—	4,390	—	152
	프로판	6,871	210	1,981	5,138	7,329	—	458
	부탄	7,888	370	5,114	2,883	8,367	—	479
	計	171,913	10,880	159,459	17,549	187,888	5,491	10,484
非에너지油	나프타	26,041	1,139	22,195	4,267	27,601	—	1,560
	溶劑	584	63	560	—	623	5	34
	아스팔트	2,410	105	2,426	—	2,531	4	117
	計	29,035	1,307	25,206	4,267	30,855	9	1,811
計		200,948	12,187	184,640	21,816	218,643	5,500	12,195
		(550.5)		(505.9)				

염물질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아황산가스(SO_2)의 오염도를 국제환경기준치인 0.05 ppm 이하로 감소하여 쾌적한 国民生活環境을 조성키 위하여 지난 81년도부터 서울지역과 蔚山 火力発電所에 低硫黄燃料油(B—C油와 軽油)를 공급하기 시작하였다.

그후 대기오염도가 심한 지역부터 每年 확대 공급하여 옴에 따라 仁川을 포함한 首都圈 전역과 京畿, 釜山, 大邱, 蔚山, 慶南北, 全南北및 忠南北 지역까지 공급(〈表-11〉 참조)하여 오고 있으며, 참고로 전년도의 油種別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軽油는 전체軽油수요 139千B/D中 76千B/D를 硫黄함유량 0.4%의 低硫黄軽油로 공급하여 공급률이 55%였으며, B—C油는 전체 B—C油수요 202千B/D中 80千B/D를 低硫黄B—C油로 공급함으로써 그 공급률이 40%에 이르렀다(〈表—12〉참조).

이렇게 매년 연차적으로 低硫黄燃料油를 확대공급함에 따라 해당공급지역의 아황산가스汚染度는

〈表-11〉 연도별 低硫黄燃料油 공급확대지역 現況

油種 \ 硫黄含量 \ 年度		81	82	83	84	85(計劃)
B-C油	1.6%	○서울지역 年 100kℓ 使用業所	○서울 및 仁川地域 事業者 ○首都圈隣接 6個市郡(富川市, 始興, 安養, 光明, 城南, 議政府市)	○慶南道의 蔚山市 및 蔚州郡地域 全事業者 추가	○釜山市 및 大邱市 事業者 추가 ○京畿道內 南陽州郡 추가	○水原市 및 大田市 事業者 추가 ○麗水工團추가
	2.5%	○蔚山火力 ○嶺南火力	○蔚山火力 ○仁川 및 京仁火力	○左同	○左同	○麗水火力추가
軽 油	0.4%	○서울지역車輛	○서울·仁川地域全事業者 및 車輛 ○京畿·釜山域地車輛	○慶南北車輛추가	○全南北 및 忠南北車輛추가	○서울地域全使用者 ○江原車輛추가

〈表-12〉 연도별 低硫黄燃料油 공급실적 및 計劃

(單位 : 공급량 : 千B/D, 공급률 : %)

年度 \ 油種		B—C油			軽油			合計		
		低硫黄	高硫黄	計	低硫黄	高硫黄	計	低硫黄	高硫黄	計
81	供給量	27.8	225.8	253.6	10.7	96.5	107.2	38.5	322.3	360.8
	供給率	11	89	100	10	90	100	10.7	89.3	100
82	供給量	62.7	182.5	245.3	25.1	86.3	111.4	87.8	268.8	356.6
	供給率	25.6	74.4	100	22.5	77.5	100	24.6	75.4	100
83	供給量	78.8	163.5	242.3	42.8	80.0	122.8	121.6	243.5	365.1
	供給率	32.5	67.5	100	34.9	65.1	100	33.3	66.7	100
84	供給量	79.7	122.0	201.7	76.2	62.6	138.8	155.9	184.6	340.5
	供給率	39.5	60.5	100	54.9	45.1	100	45.8	54.2	100
85(計劃)	供給量	111.2	104.1	215.3	93.0	53.8	146.8	204.2	157.9	362.1
	供給率	51.6	48.4	100	63.4	36.6	100	56.4	43.6	100

그 증가세가 鈍化 내지는 감소되고 있는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어 그야말로 低硫黃燃料油의 확대공급이 대도시 및 工團周辺의 대기오염도 감소에 결정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하겠다.

한편, 85년도의 低硫黃燃料油 확대공급 문제는 精油社의 低硫黃原油 확보상태 및 賃加工실시 등 低硫黃油 공급능력과 제5차5개년계획 등을 감안하여 硫黃含量 1.6%의 B—C油는 水原과 大田지역 全事業者에게 추가 확대공급토록 하고, 硫黃含量 0.4%의 輕油는 서울지역全使用者 및 江原道 차량에 추가 확대 공급할 계획이다. 그러니까 輕油用차량에 대하여는 올해부터는 濟州道차량만을 제외한 모든 차량에 低硫黃輕油를 공급할 계획이며, 올해의 低硫黃燃料油 공급률은 B—C油는 52%, 輕油는 63% 수준까지 상승시킬 계획이고, 확대공급 시기는 공급자와 사용자의 受容準備期間을 고려하여 올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마. 賃加工 輸出

제2차 世界石油波動이후 국내石油製品 수요의 계속된 감소추세로 인하여 精油會社의 가동률이 60% 수준을 하회하게 되고, 国際原油市況도 공급과잉현상이 계속됨에 따라 現物市場으로부터의 저렴한 原油購買가 가능해지자 지난 82년도 하반기경부터 일부 精油會社에서 遊休精製施設을 활용한 原油의 賃加工수출을 추진하게 되었다.

정부에서도 이러한 精油業界의 脫不況노력에 대하여는 국내외 石油市場의 여건변화를 감안하여 국내遊休精製施設을 활용한 국제수지개선과 정유회사의 경영수지개선 및 国際石油市場에의 輸出入基盤을 구축하기 위하여 이를 적극 지원하게 되었으며, 이로 인하여 지난 84년도에는 83년도보다 73.5% 증가한 21.633千배럴이나 수출하여 수출액도 6億5千万달러나 되었으며, 가동률도 약 7.3%의 上昇效果를 거두게 되었다.

정부는 올해에도 국내石油製品수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 국민경제상 유익하고 精油會社의 가동률을 제고할 수 있는 범위내에서는 遊休精製시설을 활용한 賃加工수출을 적극 권장해 나갈 계획이나,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이나 미비점이 있을 경우에는 앞으로 계속 시정 및 보완해 나갈 방침이다.

Ⅳ. 맺는말

제2차 世界石油波動이후 延 3년동안 감소추세를 보이던 石油製品수요가 국내외 경기회복과 더불어 83년도부터 다시 증가세로 전환되고는 있으나, 70년대의 연평균 10% 이상의 큰 수요증가추세는 이제 기대하기 어려우며, 脫石油 및 에너지消費節約施策의 착실한 추진과정속에서 약 3% 내외의 완만한 수요증가세가 예측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속에서 85년도의 국내石油製品 수급계획을 전망해 볼 때, 이란—이락戰爭으로 인한 일말의 불안요인은 常存하고 있으나, 대체적으로 国際原油市場에서의 공급과잉현상 지속과 原油価格의 안정세가 계속 유지될 전망이므로 일단은 別問題는 없다고 보겠다.

그러나 에너지수급이란 물량이 부족해도 걱정이지만, 남아도 걱정인 것이 그 특성아닌 属性이므로 올해의 石油需給計劃上에 나타난 몇가지 특징과 해결과제를 '언급해 본다면, 우선 우리 나라의 石油製品수요구조가 先進国化하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즉 揮發油, 나프타, 輕油등의 輕質油수요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국내 生産供給物量이 부족하여 상당량을 수입해야 할 형편인 반면, B—C油와 같은 重質油의 수요는 감소되고 있어 생산과잉에 따른 수급불균형으로 일부 수출해야 하는 입장이다. 또한 매년 사용량이 증가되고 있는 低硫黃燃料油와 가스燃料도 이제는 石油製品需給計劃上 빼놓을 수 없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輸入物量도 증가추세에 있어 수급상황변동에 각별히 留意해야 할 부문이다.

이러한 일부 油種間의 수급불균형문제는 정부의 가격정책적 측면과 精油會社 스스로 長·短期的 국내石油需要패턴 및 自社수급동향에 알맞는 原油도입과 精製施設(脫黃·分解施設 포함)설비 등을 통하여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끝으로, 올 한해도 石油製品수급이 안정되고 流通도 원활하게 되어 국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政府 및 精油社가 다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